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 반연 일으키는 그놈이 '진심' 이구나

## 업의 당처가 빈줄 알아야한다 ④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면 경계에 닿질려서 일어나는 그 마음을 써, 다시 말하면 반연(攀緣), 아, 여러 가지 인연해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 반연 일으키는 그 진심 아니에요? 그렇다면 반연이라는 것은 지가 올바로 생각했는지 그렇게 생각했는지, 거기서 한 가닥 여감을 일으켜서 말이지 반연을 일으켜 봤는데 이것 헛것이거든요. 지가 일으켰으니 헛거 아니에요? 모래 위에 집짓는 거나 한가지란 말이죠. 아, 요거 헛거로구나 하고 딱 알아버리면은 말이죠 반연에서 일어나는 망심은 저절로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진심이 그대로 나타나. 그대로 나타났다고 해서 이거 어디서 딴 데서 숨어가 있다가 다시 오는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 반연을 일으키던 그놈이 바로 진심이구나. 그러면 내가 반연을 일으키지 않으면 되구나. 경계에 닿질려서 일어나는 망심을 내가 쓰지 않으면 되는구나. 이거 좀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눈의 소재를 찾아야 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지 눈이라는 마음을 대표한 겁니다. 마음이 맑으면 눈이 맑아. 그러니까 눈부터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거 다 나옵니다. 하하하. 초학자는 차차 차차 이래 해가야 좋습니다. 그 소재(所在) 소재가 어디 있나요? 솔직한 말로, 소재라 해 봤든 당장의 마음 그 가운데 있거든. 진심을 찾으려는 거기에 있거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바로 그 자리거든요. 그럼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이고 나는 와 이리 모르노. 나는 와 모르노 하는 그 자리거든요. 그럼 나는 와 모르노, 이거 반연에 따라 일어나는 망상이거든. 내가 와 몰랐노 하는 이 생각도 썩 지워 버리면, 그대로 뚜렷한, 이런 생각도 일으킬 수 있고 저런 생각도 일으킬 수 있고 오만 가지 생각을 일으키는 그 자리는, 그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의젓하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것이 너무 쉬워놓으니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운 선생, 어떻게 좀 어렵게 들립니까. 근데 이것이 문제는 말이 너무 쉬워서 그렇나요? 말이 너무 쉬워서 좀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지. 말이 쉬우나 어려운 우리가 말이 두 가지 세 가지 마음

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생각이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는 것이지. 만약 선과 악이 있다면 여러 분을 생각해 보세요. 요새 인자 어떤 철학자들은 선은 선이 있고 나면서부터 악한데 어떻게 어떻게...

예 그러느냐. 당장의 내가 있거든. 부처님 환하게 아는데, 그러하니 이전 어른들이 대도를 통한 분들이 전부 말한 것이, 부처님도 그랬습니다. 육년 동안 말이지 고생한 거 헛고생 했다. 아 마음 하나 탁 돌리면 그만인데 헛고생 했다. 이전의 다른 조사들도 헛고생 했다. 이려고 기쁨에 겨워서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많습디다. 이했는데 이거 희한한 일이 있는 것이 육조대사 이 양반이 헛고생을 안 했어요. 나중에 참 도를 이룬 다음에 거 고생을 했는데 그건 좀 다르죠. 한 십여 년

“

경계에 닿질려 일어나는 망심 오만 생각 일으키는 그 자리는 빛깔도 냄새도 소리도 없어 의젓하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아, 이 양반 어떻게 됐든지 말이지 천하의 무식쟁인데, 그 양반 그 얼굴 보면 말이죠 동상이나 목상이나 사진 찍어놓은 것 보면 얼굴 못났습디다. 얼굴도 못났지 키도 작지 상늬이지 무식하지, 그거 뭐 천하의 불행한 건 전부 독차지한 분이예요. 전매특허나 한가지예요.

이런 분이 고생을 안 하고 대도를 성취했습니다. 그 무슨 관젠가. 이 사람이 만약 우리가 예를 들면, 만약 책을 좀 보고 공부를 했다면 안 됐을런지도 모릅디다. 안 됐을런지도 몰라요. 진심이 있고 사심이 있고 삼독심이 있고 무엇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불도까지 닦아가는데는 오십 삼단계가 있고 무엇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그 지식이 만약 그 양반이 지식이 있어서 책을 봤더라면은 대성 못 했을런지도 모릅디다. 이거 내가 과도한 말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양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 그만 그저 산에 가서

일할 줄 알았고 나무 팔아서 어머니를 갖다 부양해야 되니, 또 효자라요.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니까 쌀 팔아서 어머니 갖다 드릴 줄 알아. 그리고 괴로우면 잠 잘 줄 알았어. 화닥닥거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부자를 본다든지 해도 그것도 탐도 안했어. 좌우간 백 가지 탐이 있었다면 한가지 쯤 나도 이래 해 봤으면 했을까 안 했을까, 이래 했는지 모르지만 그 얼굴 꼬라지 보니 말이지 나도 그래 했으면 이런 생각할 사람이 못 돼. 얼굴 꼬라지가, 손심 이거든 손심, 지견이 많은 사람은 공부 안 됩니다.

좌우간 어떻게든 우리가 이 마음자리 하나만 어디 있다는 거 이거만 알면은, 요거 하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참선하고 열불하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하니 참말로 우리가 어렵느냐. 사실로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잘 못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허공을 찾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또 허공을 걷어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자, 허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걷어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허공 속에서 지금 걷어잡아 있는데 그걸 모를 따름이고, 또 허공을 버릴라 하는 것도 말이죠 허공 속에서 어디 가서 다른 데 가면 허공이 아닐까요. 지구 밖을 떠나더라도 허공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짓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자리가 어디 있느냐 꼭 그거와 한가지입니다. 솔직한 말로 여러분의 몸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다. 또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거니까. 또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몸 여윈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물거품처럼 이런 걸 다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허공이 너무나 친해. 그 본래의 슬기 자리가 너무나 친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해서 그렇지. 어디 갖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도리를 알면은 벌써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피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것이, 이 난초가 피어가 있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안봐요. 저 화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환해. 이렇게 환해. 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환한 거와 같이 보는 겁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 극락세계로 가는 길이 쉬운 이유

## 14-4 십념(十念)

다른 설에 의하면 정정은 십주에서부터 그 이상, 십회향(十迴向)에까지 올라야 된다고도 한다. 십주의 자리가 되전하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이 두설은 일반적으로 불교도들이 하는 소리다. 그러나 아미타불의 경우는 구품왕생(九品往生)을 일컫는다. 구품(九品)이란 하품하(下品下), 하품중(下品中), 하품상(下品上), 중품하(中品下), 중품중(中品中), 중품상(中品上), 상품하(上品下), 상품중(上品中), 상품상(上品上)의 아홉 가지다.

이렇게하면 상품하(上品下)가 제가끔 또 상중하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극락세계의 연꽃도 하하품(下下品)에서 상상품(上上品)까지 있다는데, 최하 부분의 연꽃 봉우리 뻗힌 그 자리가 하하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하품하(下下下生)의 연꽃이라도 나무아미타불하면 벌써 왕생할 자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를 정정취(正定聚)라고 하는 것이다. 다른 교파에서 심심, 심주 또는 심행, 심희향이니 하여 정정취에 드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 놓았지만 아미타불은 정토문(淨土門)을 열어 나무아미타불만 외면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아미타불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아미타불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극락세계에 가서 생활한다는 말이며, 이것은 아주 수승한 인연에 의하여 불퇴전의 지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원효대사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천당에 간다든가, 도통한다든가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데 극락세계 가는 것은 어떻게서 그리 쉬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천당에 간다 아라한이 된다 하는 따위의 일것은 제가 스스로 걸어가자니 그토록이나 어렵다 아무리 걸음이 빠르다 해도 하루 백리나 백오십리 걸이면 고작이다. 비록 앞은 뻥이 일지라도 비행기를 타거나 특급열차로, 큰 배로 순조로 이 바람과 파도에 실려 간다면 하루에도 천리 만리를 간다. 현실 세계의 배나 비행기의 조종사들의 힘을 빌려라든 저 혼자 걸어가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인데 하물며 우리의 가장 뛰어난 수승한 아미타불의 원력에 부딪칠 때, 우리는 곧 정정(正定)의 지경을 파악할 수 있다. 이래서 참,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이란 이가 얼마나 장한가.

신라 때 서산 선일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원효대사의 제자라고도 하는 광덕

(廣德)이라느니, 광덕의 처라느니 이런 사람이 지었다는 노래지만, 어쨌든 원효대사 같은 큰 어른이 지도한 힘이 이런 데서도 엿보인다.

달이어, 이제 서방(西方)까지 가시나이까. 무량수불전(無量壽佛前)에 말씀아뢰다가 맹세 깊으신 무량수불전에 우러러 두 손 모아 사뢰기를 원왕생(願往生)이라고, 여기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사뢰어 주소서,

아, 이 몸 버려두고, 사십팔월(四十八願)이 다 성취 하실까, 왕생(往生)하기를 바라던 먼 옛날 신라

“  
천당에 가고 도통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아미타불을 만날 때 수승한 인연으로 극락세계 가는 일이 가능해진다.”

사람의 노래다. 서산마루에 걸린 하현달을 바라보고 기울어진 달더러 이르는 말이다. 아미타 무량수불 앞에 나아가거들랑 말씀 아뢰어 다오. 소복한 여인이 울바자 밑에 합장하고 서서 비는 말이다. 부처님께 맹서 하신 일인데, 설마 이를 어기시고 안 된다 하시지는 않겠지. '가고 싶어요, 남 곁에 나도 가고 싶어요' 가서 부처님께 드릴 말씀은 달아, 그리워 가슴 들먹이는 한 계집이, 님의 맹세를 믿고, 밤중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듯 애달픔으로 여기 섰노라. 울바자의 하얀 박꽃이 이슬처럼 내리는 부처님의 은혜에 호젓이 젖어, 바르르 떨고 있다. 아이 내 목숨을 바쳐 그리워하는..... 이 몸 버려두고, '날 더러 어떻게 살라고 혼자 버려두고' 그래도 괜찮으실까요? 아미타불이여, 저를 두고 남겨서 혼자서 못가십니다. 사십팔월이 어떻게 이루어지 시켰어요. 그렇고 애달픔에 설려어 떨고 있는, 이 신라 계집의 왕생 소원을 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루시진 못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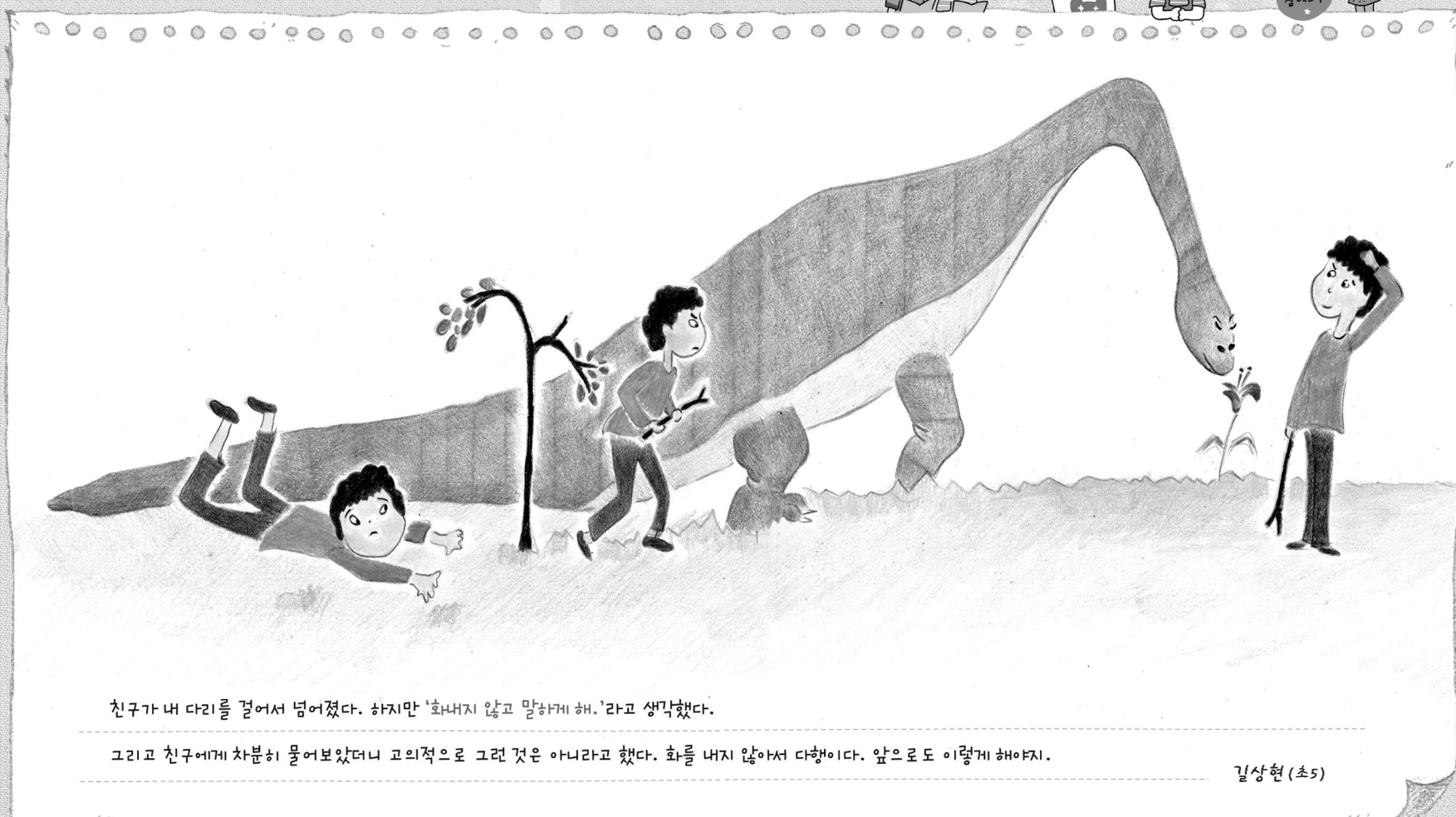
것 아니신가요.

한 많은 우리 겨레의 가슴을 울리는 노래다. 신라 사람들에게는 '그리움'이 천년되는 것을 이 영원한 정한(情恨)은 천년을 사이에 두고도 오히려 새로운 것이다. 전해 내려오기로는 광적이 죽자 그의 처가 가신 님 그리는 애절한 심회를 노래한 것이라고 한다. 그것을 엄장이 얻어다 세상에 내어 놓았다고 한다. 원효대사가 이 노래를 보시고 픽이나 기뻐하신 모양이다. 이를 엄장이 얻어 왔다고 하지만 그가 지은 것인지도 모른다. 원효대사께서 손수 이 노래를 지으시고 여기에다 기구한 사연을 달았는지도 알 수 없다. 작자는 누구였는지 간에 이 노래가 유포되면서 신라 사람들의 가슴을 친 것만은 틀림없다. 아무리 무량수불, 우리 아미타불께 드리는 말씀이기로니 이렇듯 다정하고 간곡할 수가 있을까. 순정한 연애 감정 그대로다. 어머니를 기리는 자식의 애절한 심정보다는 조금 더 짙은,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의 애육에 얽힌 사람 보다는 훨씬 승화한, 그러면서 애절하다고 할만한 정한의 호소다. '이 몸 버려두고, 사십팔월이 다 이루어지실까' 하는 끝귀의 함원(含怨)은 바로 일품이다.

아미타불은 마흔 여덟가지 원을 세우셨는데, 그 중의 하나로 '내 이름 아미타불을 부르면 누군든지 왕생할 것이요. 반드시 극락세계로 가도록 손수 이끌어 주겠다. 만일이라도 그것이 안 된다면 내 맹세코 성불하지 않으리라' 는 것이 있어, 이를 들어 '사십팔월이 다 이루어 지실까' 한 것이다. 아미타불 그리워하는 이 몸을 버려두고 그것이 될 수 있었어요 한 것이다. 얼마나 아미타불의 대자 대비에 매여달린, 그리고 탁 말겨버린 삼매(三昧)의 믿음에서 우러나는 정열의 노래가. 우리는 이런 데서 신라 사람들의 행복스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온 겨레가 이러한 노래를 보르고 늘 보는 · 감사하는, 나무아미타불의 생활들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그들의 생활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흐뭇해 진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최준원 회장) 제 3권(전 3권)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인성교육 월간지 <마음꽃>은 어른들도 함께 보는 어린이 마음공부 놀이터입니다.



친구가 내 다리를 걸어서 넘어졌다. 하지만 '호재지 않고 말하게 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친구에게 차분히 물어보았더니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다. 화를 내지 않아서 다행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김상현 (초5)

# 마음꽃

“가기 싫은 학원을 즐겁게 갈 수는 없을까?”  
“보기 싫은 친구를 사랑할 수는 없을까?”

나와 같은 고민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마음꽃>에서 만나보세요.



정기구독 안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31)470-3180 / 010-5650-3180  
정기구독료 : 30,000원 (1년 / 12권)  
입금 계좌 : 농협 356-0822-8773-23 (예금주 : 권나라)